

한·중 통신협력 양해각서 체결

— 한·중 통신분야 협력 협의 —

김영삼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간 통신분야에서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윤동윤 체신부장관과 중국의 우지추안(吳基傳; Wu Jichuan) 郵電部長(체신부 장관)이 북경에서 협의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한국 통신산업체의 중국통신망 건설 참여 및 양국간 통신산업 협력증진
- 양국간 차세대 교환기 공동연구개발
- 제4차 체신장관회담 개최

● 양국 통신산업체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한편 이같은 정부간 협의 외에, 통신산업체간의 실질적인 협력증진을 위한 양해각서가 한국 민간통신산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통신산업협회(회장 朴成圭)와 중국우전부 산하의 통신산업정책 및 산업체를 통제운영하는 우전공업총공사(PTIC)간에 체결됐다. 이 양해각서의 내용은 ▲ 한·중 통신산업 발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견교환과 상호방문 추진 ▲ 양국의 통신제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 정보의 정기적인 교환 ▲ 양국 통신산업체 대표단 구성, 상호초청, 관계기관 및 산업체 방문 추진 등 협력활동의 적극 추진 등이다. 양국 통신산업체간 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양국간 통신산업협력 분야는 기존의 전자교환기 등 일부 분야에서 광통신장비, 주파수공용통신(TRS)장비, 개인휴대통신(CT-2)장비, 디지털CDMA 이동통신장비, 차세대공중전화기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설

— 한·중 체신장관회담 협의 사항의 의미 —

중국의 교환기 도입정책은 추가로 외국기종을 도입하는 것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으며, TDX기종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에는 이미 세계의 우수한 교환기들이 거의 모두 진출해 있으며, 자체 개발한 기종도 이미 생산 단계에 있기 때문에 AT&T 5ESS-2000 수준정도의 디지털 교환기류의 추가 기종 도입을 원치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중국은 선진각국의 디지털교환기 진망허가를 억제해왔는데, 이번 한·중 체신장관회담에서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기술개선과 발전을 통해 중국 통신망에 부합한 교환기 제품을 생산하고 중국내 설치를 확대하며 제3국 수출에도 노력하기로 함에 따라 양국의 중국내 합작회사에서 생산되는 교환기가 중국내에서 공식적으로 확대 공급됨은 물론, 생산기종과 용량도 다양화하고 가격과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제3국 수출까지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경-광주간 광케이블 건설사업은 금년부터 1억달러 가량을 투입해 96년까지 총연장 3,600km의 광케이블을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그리고 호남성 광전송로 및 통신망 건설사업은 인구 6,200만의 호남성 지역에 95년까지 165만 회선의 교환시설을 보급하는 계획으로, 금년에는 65만회선의 교환기 증설과 4,000km의 광케이블 건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비 중 외자소요는 광케이블과 교환기, 광전송시스템을 포함 4천만 달러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사업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환영하고 있다. 체신금융전산망사업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 체신장관회담에서 우 지 추안(오기전) 우전부장이 한국의 참여를 강력히 희망했던 사항으로 우선 상하이(상해), 따론편(대연), 베

이징(북경)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점차 전국망으로 확대해 전국 약 2,300개 우체국에 3,000여대의 단말기를 설치하며 2천년까지 약 1만개의 주요 우체국을 온라인화하는 계획이다. 약 1억불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체신금융전산망사업에는 IBM, 탠덤등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7개 컴퓨터 전문회사들이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주)데이콤이 국내 체신금융전산망사업 참여실적을 바탕으로 적극 참여중이다. 이 밖에 차세대 교환기의 공동연구 개발에 합의한 것은 장기적인 산업협력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 한·중 통신분야 협력증진을 위한 체신부 방침 —

체신부는 국내 통신산업체가 이번에 협의된 중국의 통신망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연계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체신부는 또 이상과 같은 통신분야 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년중에 중국의 우전부와 주요 대도시 및 지방성정부의 고위 통신전문가 50여명을 2주간 일정으로 초청하여 한국의 통신시설과 통신사업체 및 주요 연구소를 시찰케 하고 국내 통신산업체와의 의견교환도 주선할 예정이다. 이는 중국 여러 지방의 통신관계자에게 한국 통신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앞으로 양국간 통신협력이 더욱 활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체신부는 한·중 기술세미나를 통해 디지털 CDMA, 차세대교환기, 초고속광통신시스템 등 한국의 기술수준을 소개하고, 우정·전기통신 등 각 분야의 인력교류를 활성화해 한국의 기술수준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 한국 통신산업체의 중국 진출현황 —

한국통신산업체의 중국진출 현황은 금성정보통신과 삼성전자가 산동성 등에 전자교환기 합작공장을 설립 가동중이고, 대우통신과 동양전자통신도 교환기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중이며, 대한전선은 청도에 전력케이블과 통신케이블 합작공장 설립에 이어 북경에도 광케이블, 통신케이블 생산공장을 건설중에 있다.

한·중 통신협력 현황

1. 전자교환기사업 협력확대

가. 국내 교환기업체 중국진출 현황

• 금성정보통신

- 산동성 웨이팡시에 화금통신유한공사를 설립('93. 9)
 - 1200만불중 45%투자
 - 합작선 : 웨이팡 화광통신산업 집단
 - 현재 STAREX모델 TX1(10만회선급), TP(2만회선급) 조립생산중
- 광둥성 은핑현에 광둥금성통신설비유한공사를 설립('93. 10)
 - 250만불중 45%투자
 - 현재 STAREX기종 IMS(2000회선급) 조립생산중
 - 합작선 : 우전공업총공사

• 삼성전자

- 산동성 위해시에 산동삼성통신설비유한공사를 설립(93. 7)
 - 2000만불중 46%투자
 - 합작선 : 산동성 우전관리국 및 북양전기집단공사
 - 현재 SDX기종 1B(2만회선급), RA(5000회선급), RB(2000회선급) 조립생산중

• 대우통신

- 호남성 상덕시의 상덕유기통신집단(우전부소속 공장)과 합작회사 설립 협의중

• 동양전자통신

- 안휘성 제주시 제주무선정청과 합작회사 설립협의중

● 국내업체 진출현황

〈금성정보통신〉

회 사 명	승인 생산 품목	진 망 허 가	공 급 현 황
○ 화금통신	○ STAREX-TX1(10만회선) ○ STAREX-TP (2만회선)	○ 합작회사를 통해 추진 예정	○ '94년 상반기중 생산개시 예정 - TX 1대주문(5,000회선) - TP 4대는 합작공장에서 시험중 ※ 1대는 안휘성에 직수출 운영중 ('93. 11)
○ 광동금성통신	○ STAREX-IMS(2000회선)		○ '94년 1월 생산 개시

※ STAREX-IMS 판매실적

- '93년까지 판매 실적 : 600시스템 (30만 회선)
- '94년 판매계획 : 840시스템 (34만 회선)

〈삼성전자〉

회 사 명	승인 생산 품목	진 망 허 가	공 급 현 황
○ 산동삼성통신	○ SDX-IB(2만회선) ○ SDX-RA(5,000회선) ○ SDX-RB(2,000회선)	○ 중앙정부에 요청 ('92. 5) ○ '94년하반기추진 ○ 진망허가요구중	○ '94년 4월 생산개시 예정 ※ 직수출 11,000회선 - 광동성 주해시(2,000) - 산동성 위해시(2,000) - 산동성 즉묵시(3,000) - 요녕성 단동시(4,000) - ○ 105대(85,000회선)

나. 중국의 전자교환기 정책 및 통신시설 현황

● 중국정부의 교환기 도입정책

-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지역은 중앙정부가 새로운 기종의 시장진입을 강력히 통제
- 수요가 분산된 농촌지역은 성정부가 조달보급
- 자국의 통신사업체 육성을 위해 직도입 억제 및 합작생산 유도

● 중국의 통신시설 현황

- '93년말 교환시설(추정) : 4,000만회선(국내 교환기포함)
- 전화가입자수 및 전화보급율 : 약 - 2,400만 명, 100인당 2.1대
- 향후 설치계획
 - 2001년까지 1억회선 설치목표
 - 94년에는 1,200만회선을 설치할 계획

- 교환기 공급내역

-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6개국 7개 기종이 현지합작 또는 정부차관 공여에 의거 중국에 공급되고 있음
- * 미국(AT&T의 5ESS), 일본(NEC의 NEAX, 후지쯔의 FETEX), 프랑스(ALCATEL의 S-1240), 독일(SIEMENS의 EWSD), 캐나다(NT의 DMS), 스웨덴(ERICSSON의 AXE-10)
- 중국 자체기술로 개발한 소형교환기도 일부 생산공급
- * DS-2000A, HJD-04, DS-30

2. 국내 산업체 참여현황

- 삼성전자 : 북경-삼양-하얼빈간 광케이블건설 입찰사업 참가
- 참여내용 : 광케이블 및 액세서리 납품
- 사업구간 : 북경-푸신-치치하얼(총 1,761km)

- 계약일 : '93. 3. 12.
- 계약금액 : 약 600만\$
※사업재원은 일본의 해외경제개발협력기금(OECF)활용
- 공사실태 : '93년말 완공('94년 상반기 운용 예정)
- **고 합** : 경고종합통신설비유한공사 설립 및 중국의 부가통신사업 참여
- 자본금 : 150만불(고합그룹 지분 : 50%)
- 설립일 : '93. 8. 24
- 참여회사 : 고합그룹(한국), 북경시전신관리국(중국)
- 사업내용 : 금융전산(금융결제), 행정전산(우정금융)
예약전산(철도, 항공) 등 비음성 통신 분야
- ※'94. 3. 28일 동 합작사는 자체 생산한 통신장비를 이용해 종합정보통신망을 개통할 예정임

- **대한전선의 광케이블 합작공장 설립**
- ① 회사명 : 북경 대경통신전람유한공사('92. 7. 17 설립)
- 자본금 : 11,972천\$ (대한전선지분 : 55%)
- 합작선
 - 북경 광통신공사, 중국 통신건설총공사, 북경시 전신관리국, 북경시 대흥현 황충진공업총공사(총 35%)
 - 홍콩 금보도 전람공사(10%)
- 생산품목 : 광케이블, 통신케이블('94. 12부터 생산예정)
- ② 회사명 : 청도 청대전람유한공사('92. 11. 20)
- 자본금 : 11,800천\$ (대한전선지분 : 55%)

- 합작선 : 중국 청도전람창, 홍콩 금보도전람공사
- 생산품목 : 전력케이블 및 통신케이블('93. 1. 1부터 가동)
- ※매출액 : 1,200만\$('93), 1,700만\$('94예정)

나. 중국의 주요기간통신망 확정사업 개요(EDCF를 통한 한국기업의 국제입찰 참여 협조)

- **북경-홍콩간 광케이블 건설사업**
- 총연장 : 3,600km
- 소요예산 : 1억불 내외
- 공사기간 : '94 ~ '96
- **호남성 통신망건설 사업**
- 사업내용 : 광케이블, 교환기, 광전송시스템 포함
- 소요예산 : 약 4,000만불
- 공사기간 : '94 ~ '96
- **우정금융전산망 구축사업**
- 제1차 : 상해, 대련, 북경에 시범사업 추진
- 제2차 : 전국망으로 확대
- 예산 : 약 948만불
※참고자료 : EDCF 운영현황
- **운영규모('94. 2) : 4,326억원**
- 지원결정금액 : 19개국 24개 사업에 2,450억원
- 지원조건 :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최빈국 7년거치 18년상환)
- 이자율 : 년 2.5~5%(중국은 3.5%)
- **'94년도 EDCF 운영규모 : 2,926억원**
- 전년도 이월금 1,876억원
- '94년도 확보금액 : 1,050억원
- KT 주식매각대금(850억원), 재특용자(200억원)

• EDCF 자금의 년도별 EDCF 지원실적(총 926억원)

(단위 : 억원)

구분	'87	'88	'89	'90	'91	'92	'93	계
총규모(A)	179	42	42	238	580	753	506	2,340
통신지원(B)	-	-	-	38	54	439	395	926
B/A 비율(%)	0	0	0	6	9	58	78	38

※폴란드(382억원), 루마니아(395억원)등 5개국에 지원

• EDCF와 제외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과 비교

(단위 : 백만불)

국별/구분	기 금 명	공여금액	지원실적	조 건	
				상 환 기 간	이 율 (%)
미 국	AID	9,506	6,751	20 ~ 40	2.0 ~ 6.0
일 본	OECF	51,993	5,765	25 ~ 30	1.25 ~ 4.25
독 일	KFW	88,248	2,472	30 ~ 40	0.75 ~ 2.0
한 국	EDCF	540	326	20 ~ 25	2.5 ~ 5

※ 폴란드(382억원), 루마니아(395억원) 등 5개국에 지원

□ 통신산업분야 합작투자의 확대의 추진

- 한·중 통신산업체 대표기관간 협력각서 체결
- 체결기관
 - 한국측 : 한국통신산업협회
 - 중국측 : 중국우전공업총공사 또는 중국통신협회
- 주요내용
 - 양국 통신산업체간 기술정보 및 인력교류 추진
 - 양국간 통신분야 합작 모색
- 체결시기 : '94. 3. 24(제3차 장관회담 직후)

• 개최시기 및 장소

- 1차 : '94. 3. 24 ~ 25, 북경
 - ※ 참석규모 : 140여명(우전부, 기전부등에서 참석예정)
- 2차 : '94. 10. 25 ~ 30 기간중(중국통신전람회와 연계추진)
- 대상기술
 - 차세대교환기, 초고속광통신시스템, 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CDMA) 등
 - ※ 오찬시에는 우전부 주요간부들을 초청하여 한·중간 통신산업 협력분위기를 높여 나갈 계획임

3. 기타 활동계획

가. 위성통신회선 증설

- 회선구간 : 서울 - 산둥성 위해시
- 개 통 일 : '93. 7. 26
- 운용회선 : 60회선
- 증설계획 : 120회선으로 확대

나. 중국 고위통신전문가 50명 초청

- 초청목적 : 중국 고위통신관계자의 한국 통신 산업에 대한 인식제고로 업계진출 지원
- 주요행사 : 통신시설 견학 및 업체·연구소 시찰
- 시행시기 : 5월(16명), 8월(17명), 11월(17명)
- 방한기간 : 2주간
- 비용부담 : 한국측

다. 한·중 통신기술세미나 개최

- 주관 : 체신부와 중국우전부 공동개최
(통신사업자, 산업체, 연구소 등 관련 기관 참여)

라. 고품그룹 현지합작회사의 종합정보통신망 개통 및 신용카드 조회사업 개업식

- 주관 : 경고종합통신설비유한공사, 북경시 공동
- 일시 : '94. 3. 28(월)
- 장소 : 북경 오주대주점
- 참석 : 체신부장관(우전부장관 미정), 북경 시장, 기타 관계자 300여명
- 내용 : 합작회사에서 생산한 데이터통신장비(UDVM)을 중국의 공중패킷망에 접속하여 신용카드조회서비스 제공

□ UDVM(Universal Data Voice Multiplexer) : 기존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음성과 데이터를 동시에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통신망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장비

마. 한·중 해저광케이블 건설추진

- 추진경위
- '93. 6. 30 : MOC서명

- '93. 9. 11. 24 : 한·중해저광케이블 건설 및 유지보수 협정서명

• 사업개요

- 건설당사자 : 한국전기통신공사 우전부전신 중국

- 구 간 : 태안(한국) - 산둥성 청도(중국측)

- 용 량 : 7,560회선급 2개시스템(15, 120회선)

- 비 용 : 약 49백만불 (현재 입찰추진중)

• 향후계획

- '94. 5. 18 : 입찰계약

- '95. 12 : 준공예정

※ 참고자료

• '93년도 주요국가의 통신량

(단위 : 1000)

순위	국가명	통신량(착·발신)	'92년말 순위
1	미 국	333,894	1
2	일 본	230,138	2
3	중 국	45,565	4
4	홍 콩	30,652	3

※ 중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3위로 부상('92년 4위, '91년 10위)

• 대 중국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불)

구 분		'92년말	'93. 11. 현재
총 수출입실적	수출	2,654	4,508(5,151)
	수입	3,725	3,544(3,929)
정보통신기기 수출입실적	수출	138	256
	수입	31	63

※ ()는 '93년말 수출입 실적임